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박 중 철 (경상대학교)
(nimbin21@daum.net)

국문요약

이 연구는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의 갈등과 연변 조선족을 둘러싼 홍색공포와 민족문제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과 전바오섬 무력충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관계는 분열되고 긴장된 상태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홍위병의 김일성 공격으로 북중갈등이 본격화되고, 북한도 역시 중국을 비판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축소되고, 북한은 경제와 군사적 위기를 겪으면서, 소련과 동유럽 각국에 접근하였다. 이 시기 북중관계는 '적대적 동맹'이었다.

1967년 8월부터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를 재신임하며, 좌경노선의 오류를 바로잡기 시작하였다. 1969년 3월 전바오섬을 둘러싼 중소간의 무력충돌에 의하여, 중국외교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불어 점증하는 안보위기 속에서 북한도 역시 1969년부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변의 문화대혁명은 중앙의 정치와 북중갈등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연변 자치주는 조선족 지도자를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문화대혁명 초기 저우언라이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3900). 이 연구를 하는데 조언을 준 북경대 김동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과 협력으로 질서가 관리되고 있었다. 1967년 1월, 마오위엔신이 연변지역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홍색공포분위기 속에서 무력충돌을 동반한 민족갈등이 표출되었다.

주제어 : 중소관계, 민족, 연변, 문화대혁명, 적대적동맹, 기밀해제문건

I. 머리말

이 연구는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의 갈등과 연변 조선족을 둘러싼 홍색공포와 민족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시기적으로 1964년부터 1969년까지의 사회주의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북중관계를 분석하고, 이 시기 연변에서의 민족모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1966-1969년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중소 전바오섬 무력충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관계는 분열되고 긴장된 상태였다. 이 시기 북중관계는 ‘긴장된 동맹(The Strained Alliance)’ 혹은 ‘적대적 동맹(The Alliance despite Antagonism)’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현상유지와 북한의 체제유지를 목표로 ‘포용속의 관여’ 정책이었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하여 중국의 후견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대혁명 초기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는 홍위병의 김일성 격하에서 기인한다. 문화대혁명 초기, 이런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국경지대의 연변 조선족은 중국 중앙정치와 북중갈등이라는 양국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종석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북중 갈등의 과정과 배경을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갈등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그리고 관계회복의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종석(2000; 2015)은 1956년 중파사건 이후의 북중관계를 “내정불간섭형 비대칭동맹”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조선족이라는 주제가 한국학계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한반도와 중국동북, 특히 연변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더불어 현안문제와 정책방향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여전히 문화대혁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문제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북중관계와 같이 민감한 문제와 문화대혁명을 결부시켜 연구하는 것은 중국(연변)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문화대혁명 자체에 대하여 지역(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한족지역과 소수민족

지역 등), 계급과 계층, 참여기관, 연령 등에 따라서 기억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점이 있다. 홍콩 등에서 회고록과 기밀 문건 등이 발굴되고 있다.¹⁾ 현재의 시진핑 지도부에서도 소수민족문제는 여전히 사회갈등의 핵심쟁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은 표면적으로 계급론과 사회주의 건설방법론, 당조직론 등과 같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지만, 연변과 같은 국경의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민족문제, 한족중심주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갈등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II. 중소분쟁과 북한의 자주노선

1961년 북한은 소련, 중국과 각각 동맹조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그 이후 중소분쟁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대국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위기에서 1964년 11월 모스크바 회의까지 북한은 친중적인 노선을 걸었다. 중국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이후, 비교적 온건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1964년부터 반수정주의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었었다. 1963년 9월부터 1964년 11월 사이에 중국은 9편의 공개서한을 통하여 소련 수정주의를 공격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4년 2월, 중국과 프랑스의 수교를 했다. 프랑스는 서방국가 중에 중국과 최초의 수교국이 되었다. 또한 1964년 10월 14일, 당중앙 상임위원 브레즈네프와 당서기 수슬로프 및 당 서기 셸레핀(Alexander Shelepin)의 3인을 중심으로 흐루시초프를 실각시켰다. 1964년 10월 14일 심야, 주중 소련대사 체르네토크는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 우수치엔(伍修權)에게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전달했다. 다음 날, 16일 오후 3시 중국 신장의 뤼푸보(新疆 罗布泊) 기지에서 중국 최초로 원자폭탄 시험에 성공했다. 중국인민들에게 마오쩌둥의 원자폭탄이 현대주의자 흐루시초프를 날려버린 것으로 인지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핵실험의 성공에 대하여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으로 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라고 보도하며, 중국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기술 이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중소간의 국경군사 충돌도 증가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중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1965년 1월,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련을 사회주의 진영에서 깨끗하게 몰아내자는 결의를 통과시키기까지 하였다.

1) 문화대혁명 관련 연구 동향과 쟁점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안치영(2007).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협력을 억제하고 있다.²⁾

동독의 정보보고서에 이 시기의 북중관계와 북조선의 주체노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964년부터 조선로동당은 중국공산당과 분리과정을 겪고 있었고, 소련 공산당에 접근했다. 조선로동당은 ‘독자적인 조선의 지위’나 ‘주체사상’의 형태로서 민족주의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조선지도부는 쿠바, 베트남,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였다.”³⁾

1965년은 북한과 중국, 북한과 소련은 각각 지도부간의 회의와 협력이 활발한 시기로, 북한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1964년 11월 모스크바 회의와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북중관계가 균열이 심화되었다는 측면보다는 문화대혁명의 혁명노선이 북중갈등과 연변 조선족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라고 분석한다. 1964년 11월 모스크바 회의를 계기로 중소갈등이 첨예하게 되었고⁴⁾, 헝가리의 보고서에 의하면, 모스크바회의에서 코시킨과 김일성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⁵⁾ 그 이후 북소관계가 회복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1965년 1월 코시킨(K. Kosygin)수상이 베이징, 평양, 하노이를 방문하여,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쉘레핀(A.N. Shelepin), 노피코프(V. Novikov) 등이 북한을 방문했고, 1965년 최광, 1966년 최용건이 소련을 방문했다.

더불어 1965년 북중관계도 베트남전쟁, 반동회의 10주년 기념회의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지만, 중국의 혁명노선에서 북한이 완전히 동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5년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중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참석한 비동맹운동의 참여를 도왔다.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참석하였다. 이는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행사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제3세계에 대한 외교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깊은 의견조율을 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베트남전쟁과 한일조약에 대한

2) Xia Yafeng and Shen Zihua 미발간원고; 이종석(2015)에서 재인용.

3) “국제교류과, B805/219 조선로동당 사절단과의 대담을 위한 참조사항” (베를린: 1966년 12월), 통일연구원(2006, 190-191).

4) 중공중앙당사연구실 불명, 1022. 이 사건을 계기로 중소관계는 더욱 심각한 갈등국면에 들어서고, 그 이후 문화대혁명과 전마오섬 사건에 갈등은 극에 달하여, 무력충돌의 길을 걷게 된다.

5)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서, (1965년 1월 8일)” MNL, XIX-J-1-j Korea, 1965, 73. doboz, IV-100, 001819/1965.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숙청이후 소련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북한 지도부를 모스크바에 초청했다. 이상의 문건에는 김일과 코시킨 총리 사이에 쿠바위기, 1956년 9월 소련의 북한 내정간섭, 북한의 국수주의와 경제침체 등을 둘러싼 설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⁶⁾ 1965년 6월, 류샤오치와 강광육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군이 초기 30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는데, 북한측에서 인원을 동원하여 베트남에 포로가된 인원에 대한 공작을 한다는 내용이다.⁷⁾ 8월 15일 해방 20주년 기념행사에는 중국과 소련은 각각 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외교부의 보고서에는 1965년 9월부터 북한과 소련 및 동유럽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⁸⁾

1965년 9월 30일, 아이디트를 대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개입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비동맹회의를 주도하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실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반감이 증가되고, 또한 비동맹운동에도 타격을 입었다. 1965년 10월, 아시아아프리카의 15개국 이 대표로 구성된 상설위원회가 알제리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다. 반동회의에 이어서, 혁명적인 노선과 평화적인 노선 사이 대립은 지속되었다.⁹⁾

1965년 11월 저우언라이와 이주연 부수상은 총 4차례에 걸쳐 다음 5가지 국제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였다.¹⁰⁾ 1965년 11월 10일 오후 4시, 제1차 회의에서 저우언라이와 이주연은 베트남문제, 인도네시아의 혼란상황, 한일기본조약체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의 연기문제, 북한의 군사화 문제 등 5가지 문제를 주로 논의 하였다. 중국측은 미국에 대한 무력투쟁을 주장하며, 소련의 이중적인 태도, 특히 드골을 통한 평화회담을 비난하였다. 중국의 북베트남에 대규모 군사원조 상황을 설명하며, 소련의 베트남 지원은 허구적이라고 비난하였다.¹¹⁾ 1965년 11월 11일 오후 4시, 제 3차 회의에서 저우언라이와

6)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조선 수상의 담화기요(周恩来总理同朝鲜金日成首相谈话纪要),” (자카르타 Soebandrio 관저 회의실, 1965년 4월 16일 밤), 중국외교부 당안: 106-00828-01.

7) “류샤오치 주석이 조선인민대표 단장과 접견한 후 나눈 대화기록(刘主席接见朝鲜人民代表团谈话记录)” (조어대 18층 회의실, 1965년 6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9-0212.

8) “Information about development of politic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f Czechoslovak - Korean rel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1967년 3월)” file 022.480/1967. 3, State Central Archive Prague, File A. Novotny, Foreign Affairs, KPDR, Sign 50, b4, pp15, Traslated by Alena Noskova, Ph.D. 이 문건의 주요내용은 1962-1964년의 북중관계이다.

9) “저우언라이 총리가 조선 김일성 수상에 보내는 서신(周恩来总理致朝鲜金日成首相的信),” 1965년 10월 22일, 중국외교부 당안: 106-00836-19.

10)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周恩来年譜1949-1976』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7), 764쪽.

11) “저우언라이 총리와 조선 이주연 부총리의 첫 번째 회담기록(周恩来总理同朝鮮李周淵副首相第一次会谈记录),” (조어대 호텔 4층 회의실, 1965년 11월 10일 오후 4시부터 7시3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6-05, “우리는 현재 베트남에 군사물자를 지원하는 것 이외 공병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철로와 도로를 수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하노이 북부 폭격 당한 철로와

이주연 부수상은 국제정세와 전쟁준비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의 체결에 대하여 북한과 중국은 베트남 등에 대한 향후 개입까지도 우려하고 있었다.¹²⁾ 회의 내용을 보면 1965년 중국외교에서 이미 혁명과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1965년 마오쩌둥의 혁명노선은 불이 붙고 있었고, 1965년 베트남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미국과의 어떠한 평화적인 시도도 거부하고, 소련의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비난하였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협력축소와 더불어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따라서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전쟁, 한일협정, 비동맹운동 등의 문제로 중소 사이에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선택이 폭이 넓어지고 있었고, 더불어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었다.

1964-1965년의 북한의 외교는 친중과 자주노선을 바탕으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접근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의 중국·소련 관계의 조정에 대한 대외적인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중국의 핵무기 개발의 성공, 그리고 1964년 11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중소의 갈등 심화, 둘째, 베트남전의 확산과 한국군의 참전,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한 중소의 의견대립, 셋째,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한일, 미일 관계의 강화, 넷째, 1962-1964년 소련과 동유럽의 대북 경제·군사협력의 대폭 축소, 1965년부터 북한과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점진적 관계 회복, 다섯째, 친중노선에 따른 사회주의권에서 북한의 고립과 비동맹 자주노선의 선언(친중+자주노선), 여섯째, 1964년 2월 프랑스의 드골노선에 따른 프랑스-중국의 국교정상화, 칠곱째, 1959년-1962년 재일조선인과 재일조선인 등의 대규모 해외동포 귀국사업에 따른 외부 자원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는데, 1964-1965년부터 해외동포 귀국이 급감하면서 외부로부터 자원의 유입이 급감하게 되었다.

도로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광서와 운남을 통해서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연해도서 지방 역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공병대를 엄호할 방공부대 역시 파견하였습니다. 내년 초까지, 파견될 공병부대와 방공부대는 13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월남은 우리의 몇 개 성을 막사로 삼아 부상당한 병들을 후퇴시키거나 새로운 훈련병을 이곳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요원과 기술요원 역시 이곳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4개성과 월남 사이에는 그러한 규정을 맺었으며 그들이 막사로 이용하는 4개성은 운남, 광둥, 광시, 호남이 있습니다.”

12) “저우언라이 총리와 조선 이주연 부수상의 세 번째 회담 기록)周恩来总理同朝鲜李周渊副首相第三次会谈记录,” (조어대 호텔 4호 회의실, 1965년 11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4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6-04.

Ⅲ. 중국의 혁명외교와 양국 갈등의 심화

1. 중국의 좌경외교노선

신중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권력은 막강해서 단독으로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저우언라이에게 매일 외교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리고 5인으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비서국, 이후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마오쩌둥의 결정에 합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정치국 회의는 마오쩌둥의 외교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마오쩌둥의 의향대로 합의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1966년 마오쩌둥은 단독으로 저우언라이로부터 외교부의 정책선택 문건을 전달받고, 사본은 류샤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 펑진(彭真)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과정은 문화대혁명 초기, 특히 1967년 5~8월 중국외교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는데 1967년 8월 이후에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장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Xia Yafeng 2012, 132; Xia Yafeng 2006).

문화대혁명 이전 좌경혁명노선으로 이미 부룬디,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신중국 건립 이후, 문화대혁명 외교는 특수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외활동이었다. 문화대혁명 초기, 중소분쟁과 반제국반수정(反帝反修)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면서 미소와 동맹 및 밀접한 국가에게 “미제국주의의 주구, 패거리,” “후르시초프의 주구, 패거리” 등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삼반 투쟁을 통하여 중국은 고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혁명외교노선으로 인하여, 1966년부터 1967년에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던 48개국 중 30개국과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다. 1966년 9월 9일, 마오쩌둥은 “모든 외국에 있는 외교공관에 혁명화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서신을 발송하고, 외국주재 대사관에서도 문화대혁명에 참여하게 되어, 외교활동이 마비되게 되었다(李丹慧 1997). 이 시기 린박오, 장칭, 쟡성 등이 외교부문을 장악하여 극좌적 노선을 걸었고(胡繩 주편 2005, 527),¹³⁾ 8월, 중국공산당 제 8차 11중 전회에서 국제정세 “당면한 세계혁명의 하나의 신시대”가 발표되었다. 대외적으로 급진적이며 좌경모험주의 노선을 확산했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위병의 중국외교부 및 외국공관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져, 중국이 사회주의정당에 혁명노선을 전수하려고 하면서, 사회주의권에서도 국제적으로 고립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 문화대혁명 초기, 소련, 미국, 동유럽 등과 외교관계가

13) 저우언라이와 일부 간부들이 이에 반대하였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단절되었고 적대시하게 되었고, 외교사절단의 교류는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에 불과했다. 해당국들은 주중 대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계의 등급을 낮추었다. 1967년 1-2월, 홍위병들은 몽골(김선호 2014, 63-82; 김선호 1992, 219),¹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외교관에 대한 포위와 공격, 5월말-6월, 인도, 버마 대사관에 대한 공격하였다. 또한 8월, 1만여 명 인민들이 영국의외교공관을 포위하고, 8월 22일 영국 대리대사 사무소를 방화하는 사건 등이 지속되고, 홍콩문제 등을 둘러싸고 영국관계는 관계가 단절되었다. 1967년 7월, 외교부의 천이 등 주요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외교부의 기능도 마비되었다.

1967년 10월 인도네시아와 외교관계 단절¹⁵⁾, 폴프트(크메루주루)를 지원하면서, 캄보디아와 베트남과의 관계악화되었다. 중국과 미얀마는 우호관계였는데, 1950년대부터 미얀마공산당과 내전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초기 마오쩌둥은 미얀마공산당을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미얀마와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몽골, 쿠바, 일본공산당과도 갈등을 빚었다. 소련과 중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하였고, 중국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와는 적대화되었다. 중국외교부는 극좌주의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다. 1968년 10월, 린뱌오는 국경절에 “미국제국주의 타도! 소련수정주의 타도! 각국 반동파 타도!(打倒美帝!打倒蘇修!打倒各國反動派!)”를 연설하며, 세계혁명을 추동하였다(王泰平主編 1998, 11-12; 胡繩 2005).¹⁶⁾ 이러한 일련의 외교분쟁 속에서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 외교의 전권을 부여하면서, 문화대혁명 초기의 대외활동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 홍위병의 김일성 격하와 북한의 소련·동유럽과의 관계 개선(1966-1968년)

북중갈등은 홍위병은 김일성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당시 중국혁명과정에서

14) 1967년 1월, 홍위병들은 몽골대사관에서 반소·반몽골 시위를 하며, 8월 마오쩌둥 뱃지를 받기를 거부한 베이징주재 몽골대사관의 운전수를 구타하고 차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1966년 몽골과 소련은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라는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했고, 몽골 독립시 주둔했다가 철수한 소련군 약 1만명을 동몽골-중국 국경에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소련병력을 최고 6만 6천명으로 증강시켰고, 1968년 소련 중, 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동몽골 초이발산시와 브이르누르 지역에 주둔시키며 소련군과 공동 관리하였다. 1967년 몽골-중국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71년 관계정상화가 되었다.

15) 1965년 9월 인도네시아의 쿠데타 실패이후, 반중분위기가 확산되었다. 1966년 9월 2일, 아체지구에서 발생한 화교에 대한 폭력활동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중국대사관에 4500명을 직접 수송해서 귀국시키라는 통지를 한다.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지속적인 반중활동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화교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귀국사업이 있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약 9만 4천명이 이주했다. 약 50만명의 재외화교(대부분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16) 이상과 같은 중국의 공식기록에는 문화대혁명 초기 극좌적 오류는 4인방을 중심으로 저질러졌고,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이 이런 극좌적 오류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이러한 안보위기속에서 북한은 소련, 동유럽, 비동맹국가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등 서방까지도 대화를 추구하고, 자주노선을 걸었다.

1967년 1월부터 홍위병들의 대자보에서는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매도하였다. 홍위병이 발간하는 신문 동광홍(東方紅)에도 김일성을 비난하였다. 김광협이 그런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느니, 또 다른 장성이 김일성을 체포했다느니 하는 일련의 낭설을 써 붙였다. 홍위병들은 남한이 남베트남을 돕고 있는데, 북한은 북베트남을 돕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선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독설은 점점 심해져서 광저우에서 출판된 문혁통신(文革通訊)은 김일성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며 인신 공격을 하였다.¹⁷⁾ 이와 더불어 중국의 조선족 지도자에 대한 조선특무 등으로 인식공격을 했다. 1967년 북한 중국대사를 추방하고 주중대사를 소환하였다. 중국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는 홍위병의 자극적인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직접 공격이 북소관계 회복의 동인으로 작용했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게 하는 유인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⁸⁾ 홍위병들은 북경의 조선대사관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에 중국유학생과 일부 전문가들은 잔류하고 있었다.¹⁹⁾

동독의 정보보고서는 이 시기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독자적인 조선의 지위”나 “주체사상”의 형태로써 민족주의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문화대혁명 초기 북한 외교는 상당히 고립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우호국은 쿠바, 루마니아, 북베트남(남베트남 혁명조직포함) 정도만 남게 되었다.’²⁰⁾ 1965년 북한의 수교국은 23개국에 불과했고, 더불어 평양에 외교공관을 개설한 국가는 더욱 적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사회주의 연대는 붕괴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북한, 몽골, 북베트남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세가 되었다.²¹⁾ 이에 따라서 북한은 서방과 비동맹 진영으로 접근, 특히 경제분야에서

17)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월 22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1200/1967; 서대숙 2000, 106-107.

18) “중국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1월 20일.” MNL, XIX-J-1-j China, 1967, 59. doboz, 1, 001187/62/1967.

19) Sergey Radchenko's Notebooks #9 and #10, 7 March 1967 Soviet Embassy in the DPRK, “Attitudes in the DPRK Toward the So-Called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AVPRF f. 0102, op. 23, p. 112, d. 24, pp. 13-23.

20)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 외교부로의 보고, 1966년 7월 11일”, MNL, XIX-J-1-j Vietnam, 1966, 114. doboz, 1, 004068/1966. 전 동독 대사관 1등 서기관인 스트라우스(Strauss)와 북베트남 공사-참사관 호앙 무오이(Hoang Muoi)의 대화 내용을 스트라우스가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관의 펜들러(Fendler)와 정보 공유한 내용이다.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의 고립상황과 북한의 약소국에 편중된 소국중심의 외교에 대한 북베트남의 호앙 무오이의 분석이 매우 날카롭다.

협력을 추구하였다. 심지어 파리에 민간무역사무소 개설로까지 이어졌다.²²⁾

중국홍위병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모든 국경을 따라서 '조선 수정주의'를 비판하는 선전활동을 하였다. 김일성에 의하면, 심지어 중국군이 국경을 월경한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북한의 인내심에 의하여 양측의 충돌은 회피했다고 한다(Bernd Schaefer 2011). 동독의 정보보고서에 이 시기의 북한, 중국, 소련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에 대하여 소련과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하여 원조를 중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 시기 군사적으로 조선은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이탈해서, 소련권역에 편입되었다.”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에는 전혀 접촉도 없고, 사절단 교환도 없었다.²³⁾

1966년 5월 브레즈네프와 김일성은 블라디보스톡 외곽에서 비밀회담을 했고, 협력에 합의하였다. 10월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2차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공식 외교노선으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북한은 자주와 더불어 소련에 접근하는 외교자세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12월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비밀방문했다. 12월, 브레즈네프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국, 북한, 베트남에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다.²⁴⁾

“한동안 베트남의 많은 동지들과 중국지도자들은 좋은 관계였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고 있다. 비록 모두 그 원인을 이해하고 있지만, 베트남 동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의 반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련에 대하여 비난하

21) 이 시기 북한과 쿠바는 혈맹으로 인식되었다. 장정환 소장은 1966년부터 1971년까지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역임했다. 장정환과 피델 카스트로는 수시로 만나며, 양국협력을 논의하였다. 1923년 출생으로 1961년 소장(우리의 준장)으로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김일성 주석은 1966년 11월 장정환에게 “쿠바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대사는 물론 북한 유학생들까지 다 총을 메고 지원병으로 참전해 쿠바를 도와야 한다. 일단 유사시에는 유격투쟁까지 각오해야 하니 가족들도 쿠바에 함께 가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TV(2013/7/18); 연합뉴스(2013/7/19)에서 재인용.

22) 정상천 2006. 북한은 1967년 4월 프랑스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68년 9월 서유럽 국가중 최초로 프랑스에 민간무역대표부를 파리에 설립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1964년 1월 28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4월 8일 북한에 대해서도 최저 관세율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혜국 대우(MFN)의 적용을 발표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프랑스의 정경분리원칙과 미소(美蘇) 간의 진영외교에서 탈피한 중립주의 외교정책에 편승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북한은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였다.

23) “평양주재 무관, 49 03 01 북한의 군사정치학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통일연구원편집부(2006, 204-213).

24) “브레즈네프의 보고 - 소련의 국제정책과 국제공산주의의 단결을 위한 소련공산당의 투쟁에 관하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속기, 1966년12월12일.” ПГАНИИ, ф.2, оп. 3, д.49, л.3-18.

는 자료의 인쇄를 중지시켰다. 베트남은 더욱 더 독립적인 입장을 강화하며, 국제주의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베트남과 조선 동지들은 더 이상 중국대표와 발표하는 분열적, 중상모략적 발언에 동조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소피아에서 막 끝난 세계 노동자연맹 총이사회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사례를 들어 그들(베트남, 조선)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 충분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1966년 10월 전원회의 후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더욱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전체적인 정치노선을 제정하였다: 조선이 반미와 반일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지하며; 군사적 원조-조선동지들의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하여; 경제적 원조-조선은 지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원조는 소-조의 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날, 조선동지들은 중국인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으며-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들(조선)은 중공 지도자들이 베트남과의 연합적인 행동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적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인들이 대국적 패권주의 정책을 펼치며 마오쩌둥의 사상을 전세계적으로 강화하는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의 국내정책, 그 중 '문화대혁명' 포함한 모든 정책들은 조선국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 언론에 게재된 트로츠키가 쓴 문장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것은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정치노선이 보인다. 요 며칠 우리와의 비밀 회담에서 김일성 동지가 단호하게 말하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대혁명'- 그의 말에 따르면-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웃음소리,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서, (김일성 말들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의이다.

하지만, 우리와 조선 노동당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하며, 융통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우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는 더욱 밀접해 질 것이다. 조선 동지는 우리에게 희소한 상품들을 판매하길 원하며, 이러한 상품들로 인해 소련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양당은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이 회담을 공개적이며, 솔직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비밀스럽게 모스크바를 방문했던 김일성 동지는 현재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으며, 올해만 우리는 2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회담은 우리가 조선에 취하는 정책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우리가 조선과 조선노동당간에 앞으로 더욱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1967년 3월 김일성은 이임하는 쿠바 대사 비고앙의 환송연회의 연설에서 노골적으로 마오쩌둥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과 우호국 대사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홍위병들이 김광협에 의한 쿠데타와 김일성 실각을 선전·선동했는데, 김일성은 김광협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홍위병들의 선전·선동을 각국 외교관들에게 일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북한 지도부는 북한 내의 화교에 대한 중국의 반복적인 프로파간다에 대하여 매우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한 조치로 북한에서도 화교 학교를 폐쇄하였다.²⁵⁾ 4월 베이징에서 헝가리대사 안드라스 할라스(Andras Halasz)와 북한 대사대리 김재석 사이에 북중관계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김재석은 대중에 의존하는 중국의 혁명 전략과 공산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의 혁명 방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했고, 문화대혁명의 배후로 마오쩌둥을 지목했다. 김재석은 중국의 경제전망, 특히 식량문제 등을 걱정했으며, 이에 따른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했다. 홍위병의 김일성 비난으로 북한에서 당분간 베이징으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홍위병의 소련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중국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²⁶⁾

6월 13일-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몽골, 소련, 헝가리,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1967년 7월 3일, 이영호 로동당 중앙위 정치국원 겸 최고인민대회의 부주석과 동독 중앙정치국 위원 Hermann Matern 동지 등과 통일사회당 제 7차 대회와 Karlovy Vary대회에 대하여 회담을 하면, 국제정세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하였다. 북한측은 소련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비난하였지만, 상호 중국의 상황에 대하여 일체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국제정세에 대하여, 북한과 동독의 입장은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었다.²⁷⁾ 1968년 이후 북중갈등에 따라서 북한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의 정치, 경제관계가 더욱 협력적이 되었다. 불가리아와 북한은 대사관 내에 군사외교부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북한은 불가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북한군대의 공식적 대표를 군사외교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내서 바르샤바조약 회원국의 관계, 불가리아 군수뇌부 군사전략 및 집행부와 구조변화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²⁸⁾

중국의 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 초기와 유사하게, 북한에서도 화교에 대한 동화정책과

25)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3월 9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2130/1967.

26) “중국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4월 11일.” MNL, XIX-J-1-j China, 1967, 59. doboz, 1, 001136/6/1967.

27) “조선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의 비망록(1967년7월3일), ” SAPMO-BA, Dy 30, IV 2/2.035, T6910, No4, CWIHP Bulletin, Winter 2003-Spring 2004, Issues 14/15, pp.44-47.

28) Jordan Baev(Д-р Йордан Баев) 미발간원고.

탄압이 있었다. 1963년 8월, 조선보통교육성 제17호령 결정에 따라서 중국인소학교, 중국인 중학교의 교재를 모두 북한 교육성에 발간한 교재로 동일화했으며, 수업도 조선어로 진행했다. 1966년 모든 화교학교의 교장을 북한 사람이 맡게 되었다(楊昭全, 孫玉梅 1991, 316-317; 이승엽 2012, 62-63에서 재인용). 배급을 축소하는 등 화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²⁹⁾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길림성의 도문·집안 및 장백 등 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한 화교는 모두 6,285명이다. 특히 1966년부터 1969년에 귀국한 화교들은 대개가 평양사범대학·김책공업대학·함흥화학원과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한 문화 수준이 높은 화교들로 구성되어 주목받았다. 이들은 귀국 후 길림성의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였다(이옥련 2013).³⁰⁾ 중국에서 매년 10월 25일을 ‘중국인민지원군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조선화교연합회는 이날 항상 우의탑 또는 조선인민지원군 열사릉을 찾아 참배하였다. 문화대혁명 4년간은 이와 관련 기사를 로동신문에서 찾아볼수가 없었다고 한다(이승엽 2012, 39).

3.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의 축소와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투입

1962-1964년 소련의 대북 경제 및 군사 협력이 거의 중단되었고, 1965년부터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이 대폭 감소되었다. 1950년대의 전후 복구의 실패와 1960년대 자주노선과 군사화 노선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북한 경제는 지속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의 대북 협력과 원조는 전략적 성격으로 양국관계에 따라서 부침이 심한 편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북중경제협력은 급락하게 되고, 북한 경제위기에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중소분쟁을 고려하여 중국당국은 3년 경제위기 이후, 1963년 중국과 북한은 5년 기한의 2번째 장기무역협정(1963-1967년)을 체결했다. 문화대혁명의

29)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 당국의 화교에 대한 차별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이승엽(2012, 62-63); 표도르 쉐르치츠키(2014).

30) 조선화교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귀국한 화교의 수는 약 29,000명~30,000명 정도였다. 북한화교는 1953년 11,839명, 1958년 3,778호, 14,351명이다. 그중 남성이 7,980명이고 여성이 6,371명이며 산동성 출신이 가장 많아 12,462명으로 집계되었다. 1962년부터 1970년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귀국하여 정착하거나 혹은 스스로 월경하여 귀국한 화교는 전체 18,000명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른 1970년 북한 화교는 6-7000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이르면 귀국화교는 점점 줄어들어 해마다 50-70명 정도가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7년 조선화교연합회를 구성했는데, 조선노동당과 중국 정부의 지도 아래 화교들에게 북한 정부의 정책과 법령을 준수하고 실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 기구는 중국의 북한 주재 기구 혹은 조선노동당위원회에서 직접 간부를 파견하였다. 1958년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조직부 통일전선과가 책임지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단되었다.

영향은 2번째 장기무역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후 장기무역협정은 갱신되지 않았다. 북중관계가 회복된 이후, 1970년 10월, 저우언라이가 평양을 방문하여 제 3차 장기무역협정(1971-1976년 6개년계획)을 체결했다. 1966년 양측의 무역총액은 2억 달러였고, 중국 수출이 1.14억 달러, 수입이 8800만 달러였다. 1967년 양국무역은 1.76억 달러, 1968년 1.1억 달러로 하락했고, 이후 1970년대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냉전시기 북중무역은 실제로 무역이라기보다는 원조의 성격이 강했다(当代中国丛书编辑部 1992, 299-301).

특히 경제, 산업 측면에서 북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더불어 중공업 투입으로 경공업과 농업 분야의 침체로 인민생활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분쟁 이후 긴장관계였던 사회주의 국가에 원조를 요청해야만 했다.³¹⁾ 문화대혁명 당시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은 북베트남과 쿠바 등은 전시·준전시 상태로 오히려 북한에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되는 국가였다.

1967년 11월 소련 주재 헝가리 대사대리 요제프 올라(József Oláh)도 이상과 동일한 분석으로, 홍위병의 김일성과 조선로동당에 대한 공격이 북중관계 악화를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건국절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냉담한 태도와 국가부주석 겸 외교부 부장 이주연이 이끄는 경제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점결탄(코크스용 석탄) 지원을 중지시켜 철강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과 북한 내부에 김일성에 대한 광신적인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북한과 쿠바 양자관계가 더욱 발전되어가는 점도 확인하였다.³²⁾ 문화대혁명으로 북중관계의 악화에 따라서 북한은 관계가 나뉘었던 소련에 대하여 국가부주석 겸 외교부 부장 이주연이 이끄는 경제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시켜 막대한 원조를 요구하였다.³³⁾ 화력발전의 경우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발전소가 매일 번갈아 가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³⁴⁾

이에 대하여 켈로이 펜들러 헝가리 부대사가 북베트남의 판 무역참사관과의 평양발 베이징행 비행기 속에서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보보고 내용이다.³⁵⁾ 북한은 경제는

31)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2월 27일.” MNL, XIX-J-1-j Korea, 1967, 60. doboz, 50, 001210/2/1967.

32) “소련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1월 25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5, 002126/3/1967.

33) “소련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1월 25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5, 002126/3/1967.

34) “1968년 3월 27일에서 4월 2일 헝가리-조선 기술-과학 협력 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 1968년 4월 16일,” MNL, XIX-J-1-j Korea, 19.

35) “켈로이 펜들러(Károly Fendler)가 외교부 부부장 에르데이(Erdélyi)에게 보내는 정보보고: 베트남

침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소련과 경제무역관계도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대혁명으로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도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판 참사관은 1967년 북중무역이 실제로 1억루블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판 참사관은 당시 북한 인민의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약 3kg에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1960년대에 무엇보다도 북한경제를 부진으로 빠뜨린 원인중 하나는 당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군수부문의 확대라고 동유럽 각국에서 정보보고가 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경제, 산업 측면에서 북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군방비의 과다한 투입과 더불어 중공업 투입으로 경공업과 농업 분야의 침체로 인민생활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중소분쟁 이후 긴장관계였던 사회주의 국가에 원조를 요청해야만 했다.³⁶⁾

북한주재동독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1960년대 당시 국민소득에서 군사부문이 점하는 비율을 50%라고 추정하였다. “북한에서는 1967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 7차 대회에서 국가예산의 30%를 국방비로 책정하는 예산안이 결의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국가예산에 접하는 국방비율은 50%이다.”³⁷⁾ 폴란드 대사관은 30%, 루마니아 대사관은 50%, 구소련도 50%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는 중소분쟁, 베트남전쟁의 격화, 쿠바위기, 한일국교회복, 푸에블로호 나포 및 청와대습격기도사건 등으로 국제정세가 첨예화 하자 방어시설, 포병 진지 건조 등에 추가 재정, 철강·시멘트 등을 우선적으로 투입했고 부분 동원령이 내려져 가뜩이나 빠듯한 인력난을 심화했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소경제협력은 증대되었다. 1966년 6월에 ‘1967-1970년도 상품 호상납입에 관한 협정과 어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했으며,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1967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김일 등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조인하였다. 11월에 최용건이 러시아혁명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1968년 5월 14일에서 19일까지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뵘드고르노이 위원장이 북조선을 친선 방문하여 연합공보가 발표되었다.³⁸⁾ 이로써 북중갈등에 따른 원조감소를 북소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일정정도는 보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은 병진노선을 채택하며, 장마당과 암시장이 활성화하게 되었다.

과 루마니아의 관점에서 본 북중 무역관계와 북조선 상황, 1968년 1월 3일,” MNL, XIX-J-1-j Korea, 1968, 57. doboz, 1, 00345/1968.

36)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2월 27일,” MNL, XIX-J-1-j Korea, 1967, 60. doboz, 50, 001210/2/1967.

37) “평양주재 무관 : 북한의 군사 정치적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통일연구원 편집부(2006).

38)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和蘇聯社會主義共和國聯盟之間的聯合公報,” (평양: 1969/5/19).

IV. 민족모순으로서 연변의 문화대혁명

1. 중앙 권력의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개입과 무력투쟁

1967년 1월 상해를 시작으로 실권파들로부터 탈권투쟁이 일어나서, 중국 각지에서 무력충돌이 확산되었다. 치안유지를 위하여 해방군이 동원되지만, 실권파가 장악하던 당 조직은 붕괴되고, 탈권파들이 권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1967년 6월부터 폭력사건(武鬥事件)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6년 말부터 북한과 중국은 상호공개적으로 비방이 심화되고 있었다.

연변지구의 문화대혁명은 민족문제와 더불어 북중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일제시기부터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민족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민족정풍운동으로 조선족들의 민족문제는 대두되었고, 대한족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이를 계기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1960년 중반 반우파투쟁이 조정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진정되었다(박종철 2015).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소수민족지역에서 민족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게 되었다. 한족 거주지역에서는 '반수정주의, 반자본주의(反修反資)'라는 구호와 같이, 계급론과 사회주의 건설 방법론, 당 조직론 등과 같은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하여 문화대혁명이 전개되었지만, 연변, 몽골, 신장, 티베트 등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민족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母國)가 주요 쟁점이었다(김선호 2014, 63-82; 김선호 1992).³⁹⁾ 둘째, 중앙의 문화대혁명은 저우언라이와 4인방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중앙권력이 연변에 직접 개입하여,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저우언라이는 주덕해, 조남기 등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장칭 등 4인방은 마오위엔신을 파견하여 좌파지향이며 한족중심의 민족융합과 통합을 지원하였다. 셋째, 초기에는 학생중심으로 각 파벌이 조직되고, 나중에 노동자 등이 참가하였다. 크게 홍색과 노혈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1967년까지 전개된 대중조직들 사이의 충돌도 격렬했지만, 그 이후 1968년에 전개된 '계급대오정리운동' 과정에서 충돌이 더욱 격렬해졌다.

헝가리 외교부는 북중국경과 중국내 조선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39) 주덕해 사건을 둘러싼 민족문제는 내몽골의 울란후(Ulanhu, 烏蘭夫, 중국 중국 전 국가부주석)의 사례와 유사하다. 내몽골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따른 혁명위원회와 몽골 청년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 사이에 격렬한 무력투쟁이 있었다. 베이징방위군이 내몽골지역에 투입되어 반대세력을 진압하고, 내몽골 자치구를 베이징정부 직속 관할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몽골 지식인들은 탄압하였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조선족 및 조선국적 인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으며 또한 홍위병 활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북한은 보복조치로 문화대혁명과 중국 상황에 대하여 서방언론을 인용하며, 로동신문 등에 중국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북중 국경지대에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국경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북한의 서점에서 마오쩌둥 관련 책들이 모두 사라졌다.”⁴⁰⁾

조선족 지식인 K씨는 연변의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고 있다. 그 당시 반인륜적 사건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기억이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현재까지 중국당국은 사람들의 기억을 통제하고 왜곡하고 있다. 사람들은 당시에 대하여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한 사실로 인정할 만한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1976년 문화대혁명 종결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전국적으로 문화대혁명에 대하여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연변에서 문화대혁명은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 세상이었고, 인간 본성이 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악이 구현되는 현장이었다. 1968년 말, 혁명파들은 여자들을 구들장에 넣고 군불을 때서, 질식사시켜 죽이기도 했다.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즐겨 사용했는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여 피가 흐르고 나중에 다리가 부러지는 모양이 되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고깔모자를 쓰고 홍위병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으로 눈물만 흘렸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해방군을 제외하고, 사법, 경찰 등 모든 조직이 붕괴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해방군도 마오쩌둥과 4인방이 지원하는 마오위엔신 조직(홍색파)을 암묵적,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무기를 건네기도 하였다..... 1967년 1월 마오위엔신이 연변에 오면서 대동란이 시작되었다. 홍색파(紅色派), 827파, 항대파(抗大派)의 3파벌에 나누어졌는데, 이 파벌들은 좀더 분화되었다. 연변에서 대동란의 원인중의 하나는 주덕해에 관한 문제였다. 연변에서는 군이 지원한 마오위엔신의 홍색파의 승리였고, 1967년 말 대부분 지역에서 종료가 되었다..... 마오위엔신의 홍색파가 연길을 장악하면서, 827파는 국경의 개산툰으로 도주했다. 그들중 일부는 홍색파의 추격에 따라서 조선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돈화의 경우도 홍색파가 우위를 점했는데, 1968년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10대 후반의 학생들부터 수백명이 참가하고, 기관총, 대포까지 동원되었다. 그들은 조준도 할 줄 모르고, 총 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트럭으로 도주하고, 노동자들은 백기투항하였다. 마치 조선전쟁 때 후퇴할 때와 마찬가지로였다....⁴¹⁾

40)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월 22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1200/1967.

41) 필자와의 조선족 지식인 K씨와의 인터뷰(2014/11/25).

해방시기부터 조선족 지도부는 주덕해를 중심으로 질서가 성립되어 왔었다(염인호 2005, 395-488). 연변에서 주덕해 문제는 문화대혁명과 민족문제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이다.⁴²⁾ 주덕해의 혐의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 첫째, 그는 “중국의 흐루시초프”이며 독립왕국을 지키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그의 소련유학과 북한 방문 경력은 외국 특무(특무)로 판명받는데 이용되었다. 둘째, 백두산 천지(天地) 부근의 영토를 북한에 할양할 것을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하여 비난받았다. 셋째, 혁명운동과정에서 1933년 8월, 서대립자촌 위만군 ‘가뮌’에서 체포되었다가 나온 것이 있었다는 특무혐의이다.⁴³⁾

1966년 6월 2일, 연변일보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인민일보의 사실”이 전재되었고, 이에 연변에 문화대혁명이 파급되었다. 1966년 8월18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이 전국의 홍위병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변도 혼란에 싸이게 되었고, 연변대학과 중고학교에서 홍위병들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거리에서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의 4대 구습을 파타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중고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인천냉면옥, 평양여관, 함흥식당, 용정음식점 같이 지방 이름을 단 간판은 민족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모두 철거했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33-237; 최순호 2004).

1966년 8월 하순, 연변에서 문화대혁명은 베이징, 파렌, 하얼빈 등에서 공부하던 조선인 대학생들이 혁명적 연계를 맺기 위해 연변에 와서, 연변 지역 대학에서 반란단을 조직해 자체로 혁명을 하라고 선동했다. 8월 27일, 연변대학 여학생 기숙사 앞마당에서 ‘8.27혁명 반란단’이 조직되었다. 같은 날, 다른 조직으로 ‘혁명반란단’이 결성되었고, 그후 ‘홍기전투련군(일명, 홍련, 홍색파)’가 되었다(정판룡 1993, 295; 염인호 2005, 397-398에서 재인용). 이들에 대한 지지와 반대하는 문혁 그룹이 연변에서 만들어져 상호 충돌하였다. 9월 25일, 저우언라이는 동북국 제1서기 송임국(宋任窮, 정치국후보위원, 심양군구 정치위원)과 동북국 제3서기 마명방을 연변으로 파견하여 주덕해와 조선족 간부들을 보호하도록 했고, 이들은 주당위원회에 상황을 장악하여 조언하였다.⁴⁴⁾ 저우언라이의 지원과 조언하에 주덕해는 연변에서 문화대혁명을 잘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1월 마오위엔신이 연변을 직접 통제하면서 상황은 급진적인 민족갈등으로 변질되었다.

42) 연변의 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의 핵심쟁점중의 하나는 주덕해에 대한 평가였고, 주덕해를 비방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으로도 나누워졌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308-309).

43) 이 사건은 연안시기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1956년 길림성위원회에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었다. 문화대혁명 기간, 저우언라이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주덕해에 대한 허위조사가 진행되었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82-283).

44) 저우언라이는 9월 28일 직접 주덕해를 국경절 관례(10월 1일)에 참석하도록 지시를 했다. 10월 2일 인민일보에 국경관례대에 오른 명단에 주덕해도 포함되어 있다. 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40-241; 이채진 1998, 85.

2. 홍색공포와 특무색출, 그리고 민족동화

1967년 1월 4일, 마오위엔신은 그의 추종자를 데리고 하얼빈 군사공업대학에서 연변으로 들어왔다. 이때부터 연변의 문화대혁명은 민족투쟁으로 비화하고, 저우언라이의 지원을 받는 주덕해와 조남기 등은 연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마오위엔신(毛遠新)은 마오쩌둥의 조카이자 4인장의 최측근이며, 또한 동북지역의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며 대상으로 불리고 있었다. 마오위엔신은 “혁명적 대동란은 아주 좋다” 등 7편의 글을 발표하여, 연변에 대동란, 대진동, 대분화가 있어야 진정한 좌파대오가 형성될 수 있다며 연변에 대동란을 부추겼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47). 최해룡(崔海龍, 훈춘의 지방 민병지휘관)이 이끄는 조선족의 젊은 급진파 집단은 한족 홍위병 집단에 가담하여 연변에서 문화혁명을 지령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연변대학교를 “주덕해의 지방민족주의의 검은 거점”이라고 비난했고, 이의일(李義一, 연변대학 공산당 서기)과 그 밖의 교수를 주덕해의 앞잡이라고 투옥시켰다. 연변대학교 교정에는 주덕해를 비난하는 대자보와 홍위병의 간행물이 나돌았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47; 이채진 1998, 85).⁴⁵⁾ 1월 18일부터는 연변일보를 둘러싼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여, 연변자치주당에서는 저우언라이에게 마오위엔신과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색파가 연변일보를 장악하게 되었다(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2013, 35-36; 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47; 이채진 1989, 248-249).

따라서 1월부터는 자치주의 당정 기관은 마비되고, 3월-4월, 자치주의 당정 기관에 대하여 군사관제가 시행되고 자치주 간부와 지식인들이 감시되고 숙청됨에 따라서 정부기관, 교육기관이 파괴되었다. 5월까지 자치주 간부 2779명이 박해를 받았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53; 김상철, 장재혁 2003, 90). 이후 해방군의 중립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해방군에서 마오위엔신과 홍색파들에게 무기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8월 18일에는 북한으로 집단 월경하려는 파벌이 있어서, 무장충돌이 있었다. 그들중 일부는 두만강을 건넌 북한으로 월경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연변으로 되돌아오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61). 1967년 4월 18일, 저우언라이는 주덕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베이징으로 소환했고, 1969년 10월 호북성(湖北省)의 한 인민공사로 하방되었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51, 309).⁴⁶⁾

45) 마오위엔신은 “홍룡강성 홍색조반자혁명위원회”의 책임자였다. 1968년 5월, 료녕성 혁명위원회 부주임, 1972년 중국공산당 료녕성 당서기, 1974년 2월 중국인민해방군 심양군군 정치위원을 역임했다. 문화대혁명이 혼돈을 수습하던 즈음, 1975년 9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중앙정치국 사이의 연락관을 역임했다. 이는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던 마오쩌둥을 돌보며, 비공식 직책으로 ‘마오쩌둥 관공실 주임’이 되면서, 4인방을 권력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 장칭 등 반혁명집단의 탈권활동에 앞장섰으며, 1976년 10월 사인방이 체포되었을 때, 그도 당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구속되어 당적이 박탈되었고, 재판에서 17년형을 구형받았다.

소수민족지역의 문화대혁명에서 지식인들은 홍색공포에 떨었으며, 민족 전통문화가 말살되었다. 연변에서도 한글이 발각되면 고초를 겪기 때문에 책, 편지, 족보 등도 모두 불살랐다. 계급대오정리(階級隊伍整理)⁴⁷⁾를 하면서 지식인들은 변절자, 특무, 반혁명분자로, 나쁜 분자로 몰려서 비판을 받았다. 계급대오운동은 지하국민당 사건, 특무사건, 지하로 동당사건 등과 같은 공안 사건들로 주로 조선족 지식인과 간부 등이 고초를 겪었다. 이들은 감옥에 가거나 맞아죽은 사람도 있고, 일부는 억울함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가수 방초선은 소련에 방문한 적이 있고, 북조선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소련특무’(소련스파이)이자 ‘조선특무’라는 누명을 쓰고 심문을 받았다. 오랜 심문끝에 특무혐의는 벗었지만, 노동개조대상이 되어 ‘간부학교’에 보내졌다. 돈화에서 400여명이 ‘개조대상’이 되어 ‘로동개조’를 받았다(김경갑 외 2004, 49-51).⁴⁸⁾

1968년 4월 연변자치주 공안국, 자치주 검찰원, 자치주 법원에 계급대오 정리 학습반이 개설되었다. 7월 말부터 8월까지 마오위엔신 파벌(홍색파)이 연길시의 ‘8·2’, ‘8·4’ 무차별 총격사건을 벌였고, 또한 개산툰, 용정, 왕청, 의란, 훈춘 등지에서도 총격이 벌어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다.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일부사람들이 이를 ‘반역폭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민족문제로 확장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연변지구에서 약 4천명이 처형되고, 약 5천명이 부상했으며, 몇 만명이 투옥, 격리, 심문을 받았다.⁴⁹⁾ “몽둥이 아래에서 특무가 나온다” 등의 경험에 따라서, 폭력적 방법으로 특무색출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4월까지 특무집단이 3000여명에 색출되고, 그중 200여명은 맞아 죽거나 자살하였다. 또한 주정법계통 조선족 정법간부, 경찰총수의 70%가 해당되었고, 그중 12명은 맞아 죽거나 자살했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67-268). 6월까지 지하국민당 사건이 날조되어, 1453명이 체포되고, 그중 148명이 맞아죽거나 자살하였고, 181명이 종신불구자가 되었고, 294명이 맞아서 부상을 입었다(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269-270). 1971년 당위원

46) 1972년 7월 61세의 나이로 무한에서 사망했다. 1978년 6월 10일, 중국공산당 길림성위원회는 “주덕해 공지의 문제를 시정하고 명예를 회복하여줄데 관한 결정”을 내렸고, 8월에는 연변에서 “주덕해동지의 명예회복대회”를 개최하였다.

47) 계급대오정리는 출신이나 경력이 무산계급혁명체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처리하여, 계급진영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이다.

48) 1993년 제 8기, 제 9기 전국정협위원이었다. 문화대혁명직전에 연변출신의 전국적인 유명한 조선족가수로서 주덕해의 요청에 따라 3년간 연변에서 활동할 것을 요청받아 연변에서 활동하던 중에 홍위병의 박해를 받았다.

49)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1982, 41-48; 이채진 1998, 85에서 재인용. 이채진에 의하면, 1982년 중국어판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수정본이 1984년 중국어와 한글로 재출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4년 수정본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희생자에 대한 수치가 삭제되어 있어, 1982년에는 초판에만 문화대혁명 시기 연변의 희생자에 대한 수치가 남아있다고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1984.

회를 재건할 때 자치주 8개 현, 시의 정부 서기 26명중 조선족 간부는 7명뿐이었다. 주 단위, 각 현, 시의 제 1책임자 가운데 조선인 간부는 한 사람도 없었다(김상철, 장재혁 2003, 90).

일제시기와 해방,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립이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복잡함을 바탕으로 조선족 사회 내부에 “다양한 민족과 국가에 관한 정체성”을 형성시켜 왔다. 또한 북중관계와 중국 중앙의 혁명외교의 부침에 따라서 연변 조선족 사회도 영향을 받으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민족정풍운동시기와 1966년 문화대혁명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은 사라지고, '중국 조선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통합되어 간다. 민족정풍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적이며 타협적인 정책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고, 연변도 심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문화대혁명시기 조선족 사이에 다양한 파벌이 발생하고, 중앙에서 온 마오위엔신을 중심으로 홍색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족 정책은 계급투쟁의 강조를 통한 급진적이고 강압적인 한족 중심의 동화정책이었으며, 소수민족의 전통과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정치적 정체성을 강요당했다. 조선에 친척이 있으면 조선특무, 소련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련특무, 일본어를 하거나 일제 시대에 부역 경험 등이 있으면 일본특무라고 탄압하였다. 그리고 교사 등의 지식인들은 노동자와 대립된다고 하여 지식분자, 자본주의의 길로 나가는 주자파 등이라고 하여 감금과 폭행, 재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간부와 지식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기였다.

이것은 연변 지역에서 한족 중심주의, 즉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연변 지역에서 문화대혁명은 표현으로 문화혁명이지만 실제로는 무력충돌을 통한 민족문화를 탄압하는 무투(武鬪)혁명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만주와 한반도 남북, 그리고 연변과 한반도 남북 사이에 조선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1950년대 민족정풍운동과 1960년대 문화대혁명에 대한 기억과 평가의 문제는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민감한 역사, 정치, 민족 문제는 함의하고 있다.

V. 중소 무력충돌과 북중관계의 회복(1969년)

1960년대 중소 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해 왔고, 문화대혁명 기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1968년 1월, 우수리(Ussuri) 강 주류의 중국측에 있는 섬인 칠리신(七里沁)에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이는 1969년에 발생한 대규모 무력충돌의 서곡

이었다.⁵⁰⁾ 1968~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은 각각 국경을 따라 수십만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였다.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소련의 의도에 대한 중국 지도자들의 우려를 더 한층 높였다(Xia Yafeng 2012, 134). 1969년 3월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섬(珍寶島, 다만스키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2차례의 군사충돌이 벌어졌으며, 8월 13일 신장지역의 중국과 소련 국경 부대 사이에 더욱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였다. 중국지도자들은 소련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몇 주에 걸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8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긴급지시를 내려 저우언라이를 수장으로 하는 “대공방어 국가지도자그룹”을 새로 발족시켜 대도시에서 인민과 주요 시설을 대규모로 소개(疏開)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8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소련과 몽골 국경지역으로 병력을 이동하라고 지시했다(Xia Yafeng 2012, 135). 양측의 충돌은 동북에서 신장(新疆)에 이르는 4,380km에 이르는 두 나라 국경선에 소련군 80만명, 중국군 65만명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소련 전체 군사력의 1/3이 넘는 수준이었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도 미국이 아니라 소련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다. 소련에서 중국핵 시설에 타격이 논의되고, 또한 중국지도부는 소련의 중국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도 우려하고 있었다.⁵¹⁾

이 시기 중국의 혁명노선은 북한의 대남정책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 1월 23일,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의 나포사건, 4월 15일, 미군 정보기 EC-151기의 격추 사건 등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북한으로서 군사적 긴장과 군사노선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투입으로 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 각각 협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1969년 3월, 북중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중소 국경의 무력충돌에 의하여, 북중관계는 봉합의 국면이었다. 1969년 4월, 9차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문화혁명의 가장 격한 국면은 끝났고, 중국 외교는 점차 정상화를 되찾기 시작했다(Xia Yafeng 2012, 134). 이 전당대회에서 알바니아만을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인정했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50) 1964년 10월부터 1969년 3월, 중소국경충돌은 4189회로, 1960-1964년에 비하여 1.5배정도 증가하였다. 중소국경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岩下明裕(2003). 이와 관련된 소련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할 것. Yu M. 칼레노비치(2012).

51) William P. Rogers,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The Possibility of a Soviet Strike Against Chineses Nuclear Facilities(1969년 9월 10일), 소련대사관 2등 서기관 Davydov와 대화에서, 소련에서 중국 핵시설에 대한 타격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3월말-4월초, Artstmovich 교수와 Gvishiani (코시킨의 사위)가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와 중국의 핵시설에 대한 파괴를 해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기밀해제자료에 의하면, “소련 지도부가 중국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습공격의 준비가 있었다”는 당시 키신저와 서방의 보도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를 소련과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했고, 쿠바, 루마니아, 베트남, 북한만을 중간지대 국가로 규정했다.⁵²⁾ 전당대회와 정치보고에서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중국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외교분야에서 혼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하였다.

1969년 5월 중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저우언라이는 예젠잉(叶剑英), 천이(陈毅), 네룽전(聂荣臻), 쉬상첸(徐向前)의 4명의 군사원수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국제문제를 연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몇 개월의 연구를 통하여, 9월, 그들은 “소련과의 문제에 미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미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4명의 원수의 보고서는 중국지도부에 중미관계 개선의 전략적 의의를 제시한 것이다(熊向晖 2006, 178-200; Xia Yafeng 2012).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지도부는 외교분야에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 심지어 중미대탕트, UN가입, 중일관계정상화 등의 분위기로까지 확대가 된 것이다.

1969년 6월초부터 문화대혁명 초기 소환되었던 각국 중국 대사관이 대사들이 현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이종석 2015, 22). 또한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공산당 및 노동당의 국제회의에서 형제당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조선로동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베트남과 북한의 태도에 대하여 “베트남 노동당과 조선노동당 중앙은 우리가 그들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였지만, 그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⁵³⁾ 북한이 소련의 대베트남 정책을 지지하면서, 중국은 몽고, 베트남과 북한 국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압박을 받는 형세가 되었다. 9월 베트남혁명의 지도자 호치민이 사망하여 사회주의 각국의 정상들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코시킨 수상은 장례에 참석하고 귀국하는 길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공항에서 중소 국경에서 현상유지에 합의를 하였다(中共中央文献研究室編 2013, 272).⁵⁴⁾ 9월10일, 저우언라이 등 중국지도부가 최용건을 인민대회당에

52) Embassy of the GDR in the PRC. 3 June 1969. Memorandum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Republic Cuba, Comrade Garcia-Triana, on 20 May 1969. Pola AA, MfAA, C 1365/74; Memorandum of the meeting between Erich Honecker and Kim Il Sung on 31 May 1984. SAPMO-BA, DY 30, 2460; Bernd Schaefer 2011에서 재인용. 서대숙 2000 에도 1969년 12월과 1969년 3월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의 일부는 1967년 8월과 같이 연변 문혁의 파벌내부의 무력충돌과정에서 북한으로 월경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53) “공산당과 로동자당 국제회의의 결과에 관하여: 토론보고. 관련 결정: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속기, 1969년 6월 26일). PГAIII, ф.2, оп.3, д.161, л.3-200б.

54) 1969년 9월, 소련의 지도자들은 3월 이후 계속된 양국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 시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소련 코시킨과 협상이 되었다.

초청하여 한 차례 회담을 하며(王泰平主編 1999, 36), 관계회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되고 있었다.⁵⁵⁾

1969년에도 북소 간에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고,⁵⁶⁾ 1969년 12월, 김일성, 박성철(부수상 겸 외무상)은 모스크바를 비밀방문하였다. 소련의 요청에 의하여 동유럽 각국이 북중관계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양국 외교관계가 상당부분 단절된 상태를 대사관 내부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문건이 있다. 1969년 상반기 북중 무역과 군사 부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었다. 문건에 의하면 평양의 중국대사관에는 원래 12명의 외교관이 근무하였는데, 북중 간의 대사 소환과 추방 이후 임시대사대리를 포함하여 4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양국관계의 진전에 따라 조만간 대사관 인원이 보충될 것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도 그럴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문건에 나타나 있다.⁵⁷⁾

1969년 북한 당국은 혜산의 화교 학교가 다시 문을 여는 것을 허가했지만 평양의 화교 학교의 재개교는 허가하지 않았다.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므로 평양의 화교 학교가 문을 열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에 새로운 화교 학교를 개교하는 것 역시 허락하지 않았고 중국대사관이 지방의 화교와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김일성 주의와 충돌하는 사상을 중국 대사관에서 선전·선동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이었다.⁵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지역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내포한 양국의 무력시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의 벽 전열장에 있는 문화대혁명 프로파간다가 여전히 게재되어 있어 북한 측은 37차레나 향의를 했다. 그러나 1969년 6월 당시 전반적으로 북중관계는 회복국면이라고 동유럽 외교관들은 분석하고 있었다.⁵⁹⁾ 이후 1969년 9월 30일(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2013, 269)⁶⁰⁾ 저녁 갑작스러운 중국 지도부의 초청으로 다음날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10월 1일, 천안문 성루에서 마오쩌둥은 최용건에게 홍위병 516그룹에 의한 김일성 격하 등의 북중관계

10월 20일 중소국경회담이 시작되었지만, 인식의 차이로 다시 결렬되었다.

55) 1967년 10월, 저우언라이와 김일성은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의 모크다르 울드 다다 대통령이 중국, 북한 방문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구두로 향후 상호 관계회복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미 이 국면에서 저우언라이는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염두에 두고, 홍위병의 외교활동에 대한 좌경노선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56) 『조선중앙연감』 1970, 413-414.

57)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9년 6월 24일.” MNL, XIX-J-1-j Korea, 1969, 59. doboz, 1, 002218/1/1969.

58)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9년 6월 24일.” MNL, XIX-J-1-j Korea, 1969, 59. doboz, 1, 002218/1/1969.

59)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9년 6월 24일.” MNL, XIX-J-1-j Korea, 1969, 59. doboz, 1, 002218/1/1969.

60) 마오쩌둥은 최용건에게 중소분열로 미국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 현황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며 관계회복을 하였다. 중국대사관 벽보에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홍보나 조선화교에 김일성에 대한 비방 문제 등도 설명을 하였다.

이후 중미 관계회복을 둘러싸고 1970년 4월 저우언라이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1970년 3월, 문화대혁명 초기에 소환되었던 대사가 3월 복귀했고,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의 중국인 민지원군 대표도 복귀하였다.⁶¹⁾

북중관계의 정상화 이후 불가리아 외교관은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였다. 첫째, 중국; 둘째, 베트남과 쿠바; 셋째, 루마니아, 유고와 알바니아; 그리고 나머지 사회주의국가이다. 불가리아 외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1972년 이후 베트남, 쿠바, 알바니아와 북한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만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원상 복구되면서 북한과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1972년 3월 베이징에 미국 닉슨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대해 평양과 티라나(알바니아)는 의견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알바니아 지도층은 북한과는 달리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북한 인민무력부 부상 지변학은 1972년 3월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 앞에서 “미국의 리처드 닉슨 같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큰 승리이다.”라고 한 것은 이런 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한다.⁶²⁾

VI. 맺음말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반도 현상유지와 안정화를 둘러싸고, 포용속의 관여를 하였다. 마오쩌둥은 신중국 건설이후 중국외교를 주도하였으며,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을 이용하여 좌경노선을 펼쳤지만,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를 통하여 국제관계를 회복에 노력하였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중소 전바오섬 무력충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관계는 분열되어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1960년초반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친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1964년 11월 모스크바 회의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 협력을 축소하였다. 모스크바 회의를 계기로 중소분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은 혁명외교노선을 향해 나아갔다. 1965년 비동맹회의, 베트남전, 한일협상 등을 둘러싸고 북한은 자주노선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실제로 중국과

61)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박종철(2008); 이종석(2015).

62) “1975년 평양주재 불가리아대사관 무관 보제프가 불가리아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Jordan Baev(바에프, д-р Йордан Баев) 미발간원고.

소련과 각각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헝가리, 소련 등의 보고서에는 “1965년 9월경부터 북한과 소련, 동유럽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 시기부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며, 특히 경제협력이 축소되었다”고 보고되기 시작한다.

1960년 초반 중국외교는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를 동시에 반대하며 제 3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혁명외교노선을 견고 있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외교에서 좌경급진노선을 견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 여러 사회주의와 비동맹 국가들과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1967년 8월부터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를 다시 신임을 하며, 문화대혁명 초기의 좌경노선의 오류를 바로잡기 시작하였다.

북중관계는 중국지도부의 의도라기보다는, 홍위병의 김일성 공격으로 북중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 외교부는 대사와 외교관들이 소환되었다. 북한도 역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을 축소되고, 북한의 과도한 군사비 투입으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각국에 접근하였다.

1968년 8월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1969년 3월 전바오섬을 둘러싼 중소간의 무력충돌 등 일련의 안보위기에 의하여, 중국외교는 혁명노선에서 좌경적 오류를 바로잡는 분위기를 변화하게 된다. 다음 달 4월, 9차 공산당전당대대회를 기점으로 문화대혁명의 극좌적인 분위기가 정리되었다. 푸에블로호사건, 베트남전쟁 등 점증하는 안보위기 속에서 북한도 역시 1969년부터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변은 일제시기부터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 민족갈등이 내재되어 있었고, 1950년대 후반 정풍운동 시기 민족갈등이 폭발된 적이 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이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온건한 정책 노선을 걸으며 조정하고 있었고, 연변지역도 민족갈등이 완화되는 추세였다. 연변의 문화대혁명은 중앙의 정치와 북중갈등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있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주덕해, 조남기 등의 조선족 민족지도자를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문화대혁명 초기 저우언라이 등의 지원과 협력으로 질서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1월, 마오위엔신이 직접 연변의 문화대혁명에 개입하면서, 대동란을 일으키자고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서 연변은 홍색공포분위기 속에서 민족갈등이 표출되고,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연변의 문화대혁명은 북중갈등과 민족갈등이 반영된 일종의 무력투쟁의 성격이고, 민족통합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시기 북한 내의 화교에 대하여 동맹국 인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탄압을 하며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 연구서 · 논문 |

- 김상철 · 장재혁. 2003. 『연변과 조선족』. 서울: 백산서당.
- 김선호. 1992. “문화대혁명시기의 몽·중관계.” 『백산학보』40.
- 김선호. 2014. 『내몽골, 외몽골 - 20세기 분단의 몽골역사』.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보미. 2013. 『북한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돈 오버도프 저. 이종길 역. 2003. 『두 개의 한국』. 길산.
- 류은규. 2010. 『연변문화대혁명 - 10년의 약속』. 토향.
- 박종철. 2015. “중국의 민족정풍운동과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이주.” 『한중사회과학연구』. 제 13권 3호.
- 박종철. 2008. “북한과 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연구(1969-1970년).” 『아태연구』 15.
- 표도르 짜르치즈스키(이휘성). 2014. 『북한 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근제. 2007. “문화대혁명과 연변.” 『中國現代文學』 43.
- 서대숙. 2000. 『현대 북조선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서울: 을유문화사.
- 안치영. 2007. “문화대혁명과 그 연구 동향 및 쟁점.” 『국제정치와 한국』 제23권 2호.
- 이종석. 2000. 『북조선-중국관계: 1945-2000』. 중심.
- 이종석. 2015.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중국관계 연구』. 세종연구소.
- 이옥련. 2013. “연변 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30집.
- 이채진. 1998. 『중국안의 조선족』. 서울: 청계연구소.
- 염인호. 2005. “중국 연변 문화대혁명과 주덕해의 실각: 북한 특무 혐의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 정상천. 2006. “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1968년)에 관한 연구.” 『韓國政治外

交史論叢』 제27집 제2호.

- 최순호. 2004. 『조선족이야기』. 민음사.
- 이승엽. 2012.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Yu M. 칼레노비치 저, 이재훈 역. 2012.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국경』. 군사편찬연구소.
- 平岩俊司. 201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と中華人民共和國—「唇齒の關係」の構造と変容』. 世織書房.
- 岩下 明裕. 2003. 『中・口国境4000キロ』. 角川選書.
- 楊昭全, 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베이징: 中國華僑出版公司.
- 堀田幸裕. 2002. “文化大革命初期に発生した中朝關係の悪化について(1966-1970年を中心に).” 『中国研究月報 No.658』. 中国研究所.
- 馬繼森. 2003. 『外交部文革紀實』. 香港中文大學.
- 李丹慧. 1997. “中苏分裂与“文革”时期中国外交.” 『党史研究资料』1.
- 胡绳 주편. 2005. 『中国共产党的七十年』. 中共党史出版社.
- 王泰平主編. 1998. 『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 (第2卷) :1957-1969』.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 王泰平主編. 1999. 『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 (第3卷) :1970-1978』.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 当代中国丛书编辑部. 1992. 『当代中国对外贸易 (上) 』. 当代中国出版社.
- 1982.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연길: 延邊歷史研究所.
- Xia Yafeng and Shen Zhihua. 미발간원고. “Arrogance of Certitude : Beijing’s Self-Image and China’s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from 1965 to 1969.”.
- Xia Yafeng(시아야펑) 저, 박대진 역. 2012. “중국의 엘리트 정치와 중미 관계회복, 1969년 1월 - 1972년 2월.” 『신아세아』 .
- Xia Yafeng. 2006. “China’s Elite Politics and Sino-American Rapprochement, January 1969~February 1972.”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8, No. 4 (Fall).
- Bernd Schaefer. 2004. “Weathering Moscow and Beijing: The GDR and North Korea, 1949-1989.” 『역사문화연구』 21집.
- Bernd Schaefer. 2011. “On the PRC-DPRK Relationship between 1966 and 1975.”

『“冷战时期的朝鲜半岛”国际学术讨论会(China-DPRK Relations during the Cold Wa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华东师范大学冷战国际史研究中心,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The Wilson Center, 공동주관).

- д-р Йордан Баев(바예프, Jordan Baev). 미발간원고.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РБ и КНДР 1954-1989: Нови архивни свидетелства(불가리아와 북한의 군사, 정치 관계, 1954-1989: 기밀해제문건을 중심으로).

| 연보, 회고록 등 |

- 김경갑, 김양, 우철희. 2004. “중국의 유명한 가수 방초선.” 『조선족영재록:조선족 전국 당대표 인대대표 정협위원 실화집』. 중국심양: 료녕민족출판사.
- 연변당사학회 편찬. 1989. 『연변40년기사: 1949-1989년』. 연변인민출판사.
- 정관룡. 1993. “연변의 문화대혁명.” 중국조선족 역사사전 편집위원회. 『풍랑』. 북경: 민족출판사.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항 집필소조. 1984. 『연변조선족자치주개항』.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 중공중앙당사연구실. 불명. 『중국공산당력사 제2권(1949-1978) 중』. 민족출판사.
- 熊向晖. 2006. 『我的情报与外交生涯』. 中央党史出版社.
-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1997. 『周恩来年谱1949-1976』.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2013. 『毛泽东年谱 第6卷 1949-1976』.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和苏联社会主义共和国联盟之间的联合公报,” (평양: 1969년 5월 19일).
- 1970.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중앙TV(2013/7/18).
- 연합뉴스(2013/7/19).

| 중국외교부 당안 |

- “저우언라이 총리와 김일성 조선 수상의 담화기요(周恩来总理同朝鲜金日成首相谈话记

要),” (자카르타 Soebandrio 관저 회의실, 1965년 4월 16일 밤), 중국외교부 당안: 106-00828-01.

- “저우언라이 총리가 조선 김일성 수상에게 보내는 서신(周恩来总理致朝鲜金日成首相的信),” 1965년 10월 22일, 중국외교부 당안: 106-00836-19.
- “류샤오치 주석이 조선인민대표 단장과 접견한 후 나누는 대화기록(刘主席接见朝鲜人民代表团谈话记录)” (조어대 18층 회의실, 1965년 6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4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9-0212.
- “저우언라이 총리와 조선 이주연 부총리의 첫 번째 회담기록(周恩来总理同朝鲜李周渊副首相第一次会谈记录),” (조어대 호텔 4층 회의실, 1965년 11월 10일 오후 4시부터 7시3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6-05,
- “저우언라이 총리와 조선 이주연 부수상의 세 번째 회담 기록(周恩来总理同朝鲜李周渊副首相第三次会谈记录),” (조어대 호텔 4호 회의실, 1965년 11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45분), 중국외교부 당안: 106-01476-04.

| 기밀해제문건 |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서, (1965년 1월 8일)” MNL, XIX-J-1-j Korea, 1965, 73. doboz, IV-100, 001819/1965.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월 22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1200/1967.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헝가리 외교부로의 보고, 1966년 7월 11일”, MNL, XIX-J-1-j Vietnam, 1966, 114. doboz, 1, 004068/1966.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3월 9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2130/1967.
- “중국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4월 11일.” MNL, XIX-J-1-j China, 1967, 59. doboz, 1, 001136/6/1967.
- “중국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1월 20일.” MNL, XIX-J-1-j China, 1967, 59. doboz, 1, 001187/62/1967.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8년 1월 23일.” MNL, XIX-J-1-j

- Korea, 1968, 57. doboz, 1, 001262/1968.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2월 27일.” MNL, XIX-J-1-j Korea, 1967, 60. doboz, 50, 001210/2/1967.
 - “소련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1월 25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5, 002126/3/1967.
 - “켈로이 펜들러(Károly Fendler)가 외교부 부부장 에르데이(Erdélyi)에게 보내는 정보보고: 베트남과 루마니아의 관점에서 본 북중 무역관계와 북조선 상황, 1968년 1월 3일,” MNL, XIX-J-1-j Korea, 1968, 57. doboz, 1, 00345/1968.
 - “1968년 3월 27일에서 4월 2일 헝가리-조선 기술-과학 협력 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 1968년 4월 16일,” MNL. XIX-J-1-j Korea, 19.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2월 27일,” MNL, XIX-J-1-j Korea, 1967, 60. doboz, 50, 001210/2/1967.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9년 6월 24일.” MNL, XIX-J-1-j Korea, 1969, 59. doboz, 1, 002218/1/1969.
 - “북조선 주재 헝가리 대사관에서 외교부로의 보고, 1967년 1월 22일.” MNL, XIX-J-1-j Korea, 1967, 61. doboz, 1, 001200/1967.
 - “조선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의 비망록(1967년7월3일)”, SAPMO-BA, Dy 30, IV 2/2. 035, T6910, №4, CWIHP Bulletin, Winter 2003-Spring 2004, Issues 14/15, pp.44-47.
 - “Information about development of politic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f Czechoslovak-Korean rel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1967년 3월)” file 022.480/1967. 3, State Central Archive Prague, File A. Novotny, Foreign Affairs, KPDR, Sign 50, b4, pp15, translated by Alena Noskova, Ph.D.
 - Embassy of the GDR in the PRC. 3 June 1969. Memorandum on a Conversation with the Acting Ambassador of the Republic Cuba, Comrade Garcia-Triana, on 20 May 1969. PolA AA, MfAA, C 1365/74.
 - William P. Rogers,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The Possibility of a Soviet Strike Against Chinses Nuclear Facilities(1969년 9월 10일).

“브레즈네프의 보고— 소련의 국제정책과 국제공산주의의 단결을 위한 소련공산당의 투쟁에 관하여: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속기, 1966년12월12일,” Р Г А Н И, ф.2, о п.3, л.49, л.3-18.

- “공산당과 노동자당 국제회의의 결과에 관하여: 토론보고. 관련 결정: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속기, 1969년 6월 26일),” Р Г А Н И, ф.2, о п.3, л.161, л.3-20 о б.
- 통일연구원편집부. 2006.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도서출판선인.
- “국제교류과, B805/219 조선노동당 사절단과의 대담을 위한 참조사항” (베를린: 1966년 12월),
- “평양주재 무관, 49 03 01 북한의 군사정치학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 “평양주재 무관 : 북한의 군사 정치적 발전 동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평양: 1967년 9월 27일.”

| 인터뷰 |

- 필자와의 조선족 지식인 K씨와의 인터뷰(2014년 11월 25일).
- 필자와의 조선족 간부 L씨와의 인터뷰(2007년 8월).

● 투고일 : 2015. 7. 27. ● 심사일: 2015. 7. 29. ● 게재확정일: 2015. 8. 10.

Sino-North Korean relations and Korean-Chinese minorities of Yanbian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ultural Revolution

Park, Jongch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conflicts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as well as Red Terror and ethnicity problems surrounding Korean-Chinese minorities (Chosunjok) of Yanbian during the early stage of Cultural Revolution. The relations among socialist countries were in the state of division and tension, mainly due to Cultural Revolution of China and Sino-Soviet armed conflicts of Zhenbao (Damansky) Island. Sino-North Korean relations of those times were under "adversarial alliance".

In the atmosphere of Cultural Revolution of 1966, China opted for far-left radical line in the diplomatic policy. Therefore, this brought about not only diplomatic friction with most of countries including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rupture with socialist countries and nonaligned countries. The Red Guard attacks against Kim Il Sung led to Sino-Soviet conflicts in earnest and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of both countries recalled their respective ambassadors and diplomats. North Korea also criticized Cultural Revolution of China in various ways. North Korea began to approach to Soviet Union and each country of Eastern Europe, on the ground that China's economic cooperation toward North Korea was reduced and North Korea suffered from economic crisis due to excessive investment in military expenditures. Since August of 1967, Mao Zedong placed his trust again in Zhou Enlai and started to rectify errors of left-wing line during the early stage of Cultural Revolution. Sino-Soviet armed conflicts surrounding Zhenbao Island of March of 1969 led to a turning point in Chinese diplomacy. Moreover, in the growing security crisis caused by Pueblo incident and Vietnam War, North Korea also came to push ahead with relations restoration with China since 1969.

The Cultural Revolution of Yanbian has an aspect of expansion in terms of

central politics and Sino-North Korean conflicts.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of Korean-Chinese minorities was founded focusing on ethnic leaders of Korean-Chinese minorities, and its order was under good management due to Zhou Enlai's support and collaboration during the early stage of Cultural Revolution. Nonetheless, in January of 1967, Mao Yuanxin directly intervened in Cultural Revolution of Yanbian and instigated to cause the great disturbance. Accordingly, in Yanbian in the middle of the atmosphere of Red Terror, ethnicity conflicts began to surface and armed clash arose. The Cultural Revolution of Yanbian can be evaluated not only as characteristics of a sort of armed conflicts reflecting Sino-North Korean conflicts and ethnic conflicts, but also an ethnic integration policy. At the same period of time, North Korean authorities suppressed Chinese living in North Korea and enforced a policy of assimilation.

〈Key words〉 The Sino-Soviet Relations, Nationalism, Yanbian, The Cultural Revolution, Alliance, The Declassified Documents.